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시장 성장과 번들 상품·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 확대

사례포커스

▪ 스포티파이의 번들 상품 저작권료 분쟁

스포티파이는 음악·오디오북 번들 상품으로 요금제를 재분류해 음악 저작권료 지급액을 줄였으며, 이에 MLC가 소송을 제기함. 이는 번들 상품의 저작권료 산정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분쟁 사례임.

| 2025년 글로벌 뮤직 스트리밍 플랫폼 점유율 |

	플랫폼	점유율		플랫폼	점유율
1	Spotify	13%	6	Google	2%
2	Tencent Music	8%	7	iHeartMedia	2%
3	Apple	6%	8	SoundCloud Global Limited & Co. KG	0.3%
4	Amazon	5%	9	Jio Saavn Media	0.2%
5	NetEase Cloud Music	2%	10	Gaana	0.2%

출처 :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 "Music Streaming Market Report 2026", 2026.10., https://www.thebusinessresearchcompany.com/report/music-streaming-global-market-report

뉴스브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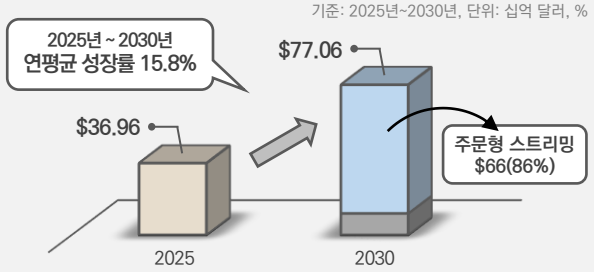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Streaming) 시장은 디지털 콘텐츠 소비와 구독 서비스 확산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시장조사업체 더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The Business Research Company)에 따르면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시장**은 2030년 770억 달러(원화 약 104.4조 원)[1] 이상 성장할 전망임. 특히 원하는 음악을 선택해 듣는 **주문형 스트리밍**이 2030년 전체 시장의 8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시장 확대와 함께 음악 저작권료의 산정 기준을 둘러싼 주요 스트리밍 사업자와 권리자 간 협상도 본격화되고 있음. 미국 저작권료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 CRB)의 2028~2032년 적용할 저작권료율을 결정하는 '포노레코즈 V(Phonorecords V)'[2] 절차에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Spotify), 애플(Apple), 아마존(Amazon) 등이 2026년 10월 저작권료율 제안서를 제출함. 스포티파이·애플·구글(Google)·판도라(Pandora)는 공연권료를 포함한 전체 요율을 2027년 기준인 서비스 매출의 15.35%로 유지하자고 제안한 반면, 아마존은 이를 13.4%로 낮출 것을 요구함. 특히 음악과 오디오북 등을 묶어 판매하는 번들 상품은 저작권료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함. 스포티파이는 2024년 3월 미국 프리미엄 요금제를 오디오북이 포함된 **번들 상품**으로 재분류해 음악 저작물에 대한 기계적 저작권료[3] 지급액을 줄였음. 이에 미국 기계적 라이선스 관리단체 (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 MLC)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6년 9월 법원은 MLC의 중간항소 허가 요청을 기각하는 한편 스포티파이의 일부 항변도 배척함. 음악출판사 측은 번들 구조가 저작권료를 줄이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플랫폼은 기존 합의된 요율과 번들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결국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성장과 함께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도 지속될 전망임. 번들 상품은 가입자 확대에 기여하지만, 저작권료 산정 방식에 따라 창작자 보상이 달라질 수 있음. 향후 미국의 요율 결정과 번들링 관련 소송 결과는 스트리밍 사업자의 상품 전략과 음악출판사·작곡가의 수익 구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시장 규모

기준: 2025년~2030년, 단위: 십억 달러, %



출처 :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 "Music Streaming Market Report 2026", 2026.10., https://www.thebusinessresearchcompany.com/report/music-streaming-global-market-report

주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의 저작권료율 제안

기준: 2028년~2032년, 단위: %

플랫폼	제안 저작권료율
스포티파이(Spotify)	15.35%
애플(Apple)	15.35%
구글(Google)	15.35%
판도라(Pandora)	15.35%
아마존(Amazon)	13.4%

출처 : MusicBusinessWorldwide, "Here's exactly what Amazon, Spotify, Apple and other streaming services want to pay songwriters for 2028-2032", 2026.10.14., https://www.musicbusinessworldwide.com/heres-exactly-what-amazon-spotify-apple-and-other-streaming-services-want-to-pay-songwriters-for-2028-2032/

본 보고서의 주요내용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시장은 구독 서비스 확산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저작권료 산정 기준과 번들 상품을 둘러싼 플랫폼·권리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본 보고서의 시사점

음악 스트리밍 시장이 성장하면서 번들 상품의 저작권료 산정 기준과 합리적인 수익 배분 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1) 1달러=1,355.70원(2026.10.01., KEB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2) 포노레코즈 V(Phonorecords V): 미국 저작권료위원회(CRB)가 2028~2032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할 기계적 저작권료율과 산정 기준을 결정하는 절차임.
3) 기계적 저작권료(Mechanical Royalty):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 및 디지털 스트리밍 이용에 따라 작곡가·작사가·음악출판사 등에 지급되는 저작권료임.

* 내용 출처 : Ein Presswire, "Music Streaming Market Forecast to 2030: Analysis of Market Size, Growth Rate, Trends, and Projections", 2026.10.14., https://www.einnews.com/pr_news/949242090/music-streaming-market-forecast-to-2030-analysis-of-market-size-growth-rate-trends-and-projections
MusicBusinessWorldwide, "Here's exactly what Amazon, Spotify, Apple and other streaming services want to pay songwriters for 2028-2032", 2026.10.14., https://www.musicbusinessworldwide.com/heres-exactly-what-amazon-spotify-apple-and-other-streaming-services-want-to-pay-songwriters-for-2028-2032/
Digital Music News, "Federal Judge Rejects MLC's Interlocutory Appeal Push in Spotify Bundling Battle — While Striking One of the DSP's Defenses", 2026.09.07., https://www.digitalmusicnews.com/2026/09/07/mlc-spotify-lawsuit-interlocutory-appeal-denied/
* 통계 출처 :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 "Music Streaming Market Report 2026", 2026.10., https://www.thebusinessresearchcompany.com/report/music-streaming-global-market-report

※ 본 보고서는 EC21R&C(컨설팅사)에서 작성하였고, 국내외 저작권 기술 · 산업 동향을 조사한 자료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